

힙한 불교...뜸한 출가

명상, 템플스테이, 불교 박람회... 최근 몇 년 새 불교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

'힙불교'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다. 광주·전남 사찰에서도 주말이면 명상 체험을 하러 온 청년들, 템플스테이를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그러나 불교의 근간을 떠받칠 출가자는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체험 불교'는 확산하고 있지만 수행과 종교 활동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지난해 조계종에서 사미계와 사미니계를 받은 출가는 모두 99명이다. 사미(남성)과 사미니(여성)는 출가한 예비 승려로 4년의 교육을 거쳐 비구와 비구니가 되면 사찰 운영과 포교,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불단을 지탱하는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전년보다는 18명이 늘었지만 2021년 99명, 2022년 61명, 2023년 84명, 2024년 81명 등 최근 5년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20년 전인 2005년에는 출가자 수가 319명에 달했지만 2010년대 들어 200명대로 줄어든 뒤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도 크게 다르지 않다. 10~20년 전만 해도 교육 기관인 선원(禪院)과 강원(講院)에 20~30대 행자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 출가 연령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지역 불교계 역시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 지역 사찰 관계자는 "요즘 들어오는 행자 대부분이 40~50대"라며 "젊은 층의 출가는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전국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34



명상에 템플스테이...

절 찾는 손님 느는데

절 지킬 스님은 줄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전남 불교계 관계자는 "요즘 젊은 세대는 불교를 신앙이라기보다 문화와 전통, 힐링의 관점에서 접하는 경우가 많다"며 "출가를 인생의 진로로 선택하는 비율은 자연스럽게

광주·전남 불교계는 출가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구례 회암사는 홍매화 시진 활영 대회와 '모기장 영화화 악회'를 열어 사찰을 문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고, 백양사는 '정관 스님 사찰 음식 체험'과 '어린이 명상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당장 출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불교와의 접점을 넓혀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광주 관음사)은 "출가를 사회와 단절된 수행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찰을 편하게 드나들며 자연스럽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의미 있는 삶을 고민하는 젊은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들에게 불교가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하나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만9000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인원 기준 60만명을 넘겼다. 광주·전남에서도 무각사와 선암사, 송광사 등을 중심으로 주말 체험 프로그램 예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명상과 선 수행 프로그램, 시찰 소개팅 '나는 절로' 등은 젊은 층의 호응이 높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속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면서 불교를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불교계 관계자는 "요즘 젊은 세대는 불교를 신앙이라기보다 문화와 전통, 힐링의 관점에서 접하는 경우가 많다"며 "출가를 인생의 진로로 선택하는 비율은 자연스럽게

정청래 대표 "합치자" 제안에

조국 대표 "논의하고 결정"

여권발 정계개편 신호탄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하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향후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과 합당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여권발 정계개편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 통합 움직임에 이어 지지기

반이 겹치는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이라는 변수가 허남 지방선거 판세도 크게 흔들어 놓을 전망이다. 행정 통합으로 광역단체장 선거가 사실상 리셋 된 데다 합당에 따른 경선 변화와 합당에 따른 각 당의 '후보 재배치'도 예상되며 때문이다.

22일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고 분석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뤄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면으로 계속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혁신 합당하나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19.54를 기록한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딜러들이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 5000 뚫었다

장중 5019.54 터치... 4952.53에 마쳐 3거래일 연속 최고 종가



광주일보 유튜브에서 '코스피 상승'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 활용.

코스피지수가 22일 사상 최초로 장중 5000을 돌파하며 '코스피 5000' 시대의 깨막을 알렸다.

<관련기사 4·9면>

이날 코스피는 종가 역시 4950선 위에서 마감, 장중 최고가와 최고 종가를 하루만에 모두 갈아치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 대비 77.13포인트(p) 오른 4987.06으로 출발해, 오전 9시 기준 5002.88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코스피 5000을 달성했다. 지난 1980년 1월 코스피 출범 이후 46년만, 최초 4000선 돌파로부터는 3개월만이다.

코스피 5000 돌파 이후에도 장중 전장 대비 109.61p(2.23%) 오른 5019.54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장중 16만원을

넘어서며 시가총액(시총) 기준 단일 종목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시총 2위 'SK하이

닉스'도 장중 주가 78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장중 큰 상승폭을 보인 현대차의 차익실현 등으로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며, 전장보다 42.60p(0.87%) 오른 4952.53에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5000p 돌파는 실패했지만, 3거래일 연속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르포 - 광양 산불 현장 가보니 ▶6면

북스 - 'EAA SO?' '미식가의 메뉴판' ▶14·15면

광주FC 후아힌 캠프 - "실수해야 강해진다" ▶18면



시대의 명작

A Timeless Masterpiece
S-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회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사고수리 062)942-7200 / 일반정비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 350 d 4MATIC · 배기량:2989, 공차중량:2145, 자동9단, 복합연비:13.0(도심연비:11.3, 고속도로연비:15.9),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8
· S 450 4MATIC · 배기량:2998, 공차중량:2090, 자동9단, 복합연비:10.0(도심연비:8.8, 고속도로연비:11.2),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S 450 4MATIC L · 배기량:2998, 공차중량:2065, 자동9단, 복합연비:9.9(도심연비:8.6, 고속도로연비:12.1),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2
· S 500 4MATIC · 배기량:2998, 공차중량:2105, 자동9단, 복합연비:9.7(도심연비:8.4, 고속도로연비:11.7),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7
· S 580 4MATIC · 배기량:3982, 공차중량:2150, 자동9단, 복합연비:8.6(도심연비:7.3, 고속도로연비:10.9), 등급:5, 복합CO2 배출량:200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